

청년이 살고 싶은 전주 만든다

제2차 청년희망도시 구축 위한 시행계획 수립... 5개 분야 68개 사업 852억60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청년이 주인이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구축을 위한 '2024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시는 △고용·일자리 △주거·관광 △문화·교육 △복지 △참여·권리 총 5개 분야 18개 부서에서 68개 사업에 852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제2차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 청년 인구는 5월말 전체 전주시 인구(639,831명) 대비 172,987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191,122명(29%)과 비교해 2% 감소한 것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18,135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방인구소멸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청년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 전주의 주인인 청년이 주도하는 참여기반을 통해 청년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전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년정책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일자리 분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구직청년 취업지원 강화,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및 창업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34개 사업에 597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역량을 강화해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 전주에 정착을 유도한다.

주거·관광분야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

해 청년 공공매입주택 추가 공급 및 주거비용 경감, 청년소통 공간 운영 및 청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7개 사업에 13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향유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창작활동 공간 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10개 사업에 12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청년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시각 없는 촉촉한 청년복지 실현을 위해 11개 사업에 10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고자 제8기 청년희망단을 40명으로 정예화하여 4개 분과별 단장을 중심으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청년정책으로 발굴했다.

이어 오는 8월까지 정책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고, 실무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청년자율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 청년의 참여로 발굴되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하는 청년온라인플랫폼, 청년이음전주 등 청년소통 채널을 강화해 종합적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자원순환 'RE12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설공단, 12개 부서 돌아가며 4가지 도전 과제 실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친환경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원순환을 위한 챌린지 RE12(알이 트웰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주시설공단이 자원순환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폐휴대폰

1일 공단에 따르면 RE12 프로젝트는 공단 12개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챌린지로 부서별로 돌아가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Reduce) △쓰는 것을 다시 쓰고(Reuse) △자원을 재활용하고(Recycle) △환경을 복구하는(Recover) 4가지 도전 과제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 테이프는 월드컵운영부가 'Re-Tree(알이 티)'로 끊었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버려져 못 쓰게 된 '티'를 가져오면 새 티로 바꿨다는 캠페인으로 못 쓰는 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 만든 티를 교체 지급해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안전팀은 'Re-Phone(알이 폰)'을 추진한다. 직원들로부터 폐휴대폰을 기부받아 총 160점을 리사이클링 업체에 전달했다. 전달된 폐휴대폰은 리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재활용된다. 공단은 폐휴대폰을 전달하고 받은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주치운영부는 잡지는 동전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Re-Coin(알이 코인)'을, 복지환경부는 의류를 모아 리사이클 업체에 기부하는 'Re-Wear(알이 웨어)'를 각각 추진한다.

또 체육공원운영부는 우유팩과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Re-Pack(알이 팩)', 마을버스운영부는 버려지는 병뚜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Re-Cap(알이 캡)'을 진행한다.

공단은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연말까지 RE12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필수 과제"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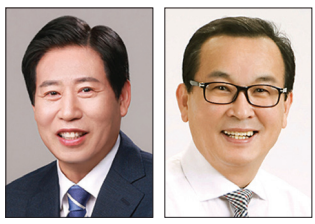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남관우 의장·최주만 부의장

전주시의회는 1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안1·2동) 의원을 의장으로,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 의원은 무소속의 양영환(3선)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최 의원이 국민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

르고 부의장으로 뽑혔다.

이날 선출된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신임 남 의장은 제8대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장 등 의회 내 요직을 역임했다.

신임 최 부의장은 제7대 의원부터 세 차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12대 전반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장 등을 통해 시민에 헌신하고 있다.

남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동료 의원들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원칙과 상식, 빠른 결단 등으로 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시민을 위한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 가동

24시간 비상근무체계 돌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달 29일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즉시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북분부는 배수장·양배수장 89개소를 포함한 2,110개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과 기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전파, 신속한 조치로 재난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한편, 재난안전상황실은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29일 오후 3시부터 올해 들어 4번째로 긴급 가동됐다.

이 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만큼 즉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대비태세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제50대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취임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책임질 수 있는 소방행정 펼칠 것"

전주덕진소방서는 제50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강봉화 서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강봉화 서장은 1일 취임 첫날부터 관내 화재예방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방문행정을 나섰다.

관내 최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예코시티 포레나에 방문한 강봉화 서장은 방재실, 피난안전구역, 엘리포트, 소방차 전용구역 등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최근 화재사태를 공유하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히 할것을 지도 하고 이와 함께 화재예방 당부 및 자율 안전관리 독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전주시 덕진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봉화 서장은 완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에 입문해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경읍소방서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